

도특구 특화기업 키운다

농생명·융복합소재부품분야 10개사 선발... 최대 5000만원 지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1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에서 '전북특구 특화기업 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구 소재 기업 100개사의 기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구내 잠재력있는 특화분야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조기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지역내 공공연구기관을 활용한 특화분야 기술기업의 특성과 장비시설 활용한 기술사업과 사업지원

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특화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혁신기술을 찾는 기업을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기술이전과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로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전북특구본부는 이사업을 통하여 10개사를 선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내역은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설계·금형, ▲복합재료 성형장비 활용 ▲후속투자 R 등시장진입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특화분야기업 육성 사업의 모집 신청은 7월 20일(목)까지 전북특구본부에서 접수하며, 접수관련 문의는 전북특구본부 육성사업팀으로(☎063-905-9755) 하면 된다.

전북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은 "전북특구본부가 '특화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특화분야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불가리아에 한국 이미지 홍보

대한민국과 불가리아 기자협회 교류행사로 10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불가리아 기자협회 대표단(대표단장 나타샤 도미노바 불가리아 기자협회 감독위원회 위원)이 송하진도지사와 한-불가리아 관계정립과 한국의 이미지 홍보등 언론차원의 상호 협력 강화를 갖고 불가리아 대표 종합편성 민영방송사인 bTV방송사가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북의 외국인관광객 정책 및 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위도띠벳놀이 '어업문화유산' 지정 실현돼야

김중희 국회의원, 관계기관 현장정책간담회 참가 필요성 강조

김중희 국회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10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 및 전북도와 부안군 어촌어항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안 '위도띠벳놀이'가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안군 위도띠벳놀이가 우리의 전통 어로행위와 실제 어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김 의원은 "평소에도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와 농어민의 오랜 문화유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위도띠벳놀이야말로 부안지방의 풍여기를 대표하는 우리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삶의 양식이기에 이의 보전과 어민들의 생계와 연결된 지원

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과 전북도는 물론 해양수산부가 나서 사라져가는 우리 어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지켜온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은 못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전해져 내려오는 위도띠벳놀이와 같은 어업유산은 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안읍내 바다 칠산어장이 비록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영향을 받아 어획고가 줄고 어종이 많이 사라져가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도띠벳놀이'가 어민의 삶과 직결된 칠산어장의 대표적인 어업유산인만큼 해양수산부

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양영진 어촌어항과장은 "의원님께서 사라져가는 우리 어업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위도띠벳놀이 부안지역의 대표적인 어업유산인만큼 어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활동과 연계된 구체적인 방안을 부안군과 함께 찾아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어업유산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위도띠벳놀이'는 중요무형문화제 제 82-3호이다.

/김진성 기자

서남대 교수협 "대학 정상화 조속 결정해야"

서남대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해당 대학 교수들이 "대학 정상화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10일 서남대 겸교수협의회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설립자 구속과 일부 교수들의 대학 발발점거, 연속적인 하위 대학 평가 그리고 무자격자들의 매각시도 등으로 많은 분들에게 우려와 심려

를 끼쳤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온전하게 학생들과 직장을 지키려는 교직원들의 몫이 됐고, 서남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서남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 등 2곳을 선정·교육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옆친데 닳친 격으로 서남대 구(옛) 재단측이 학교를 자진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회는 다시 없으며 지역사회에 커다란 피해가 될 것이다"며 "새로운 창학의 에너지로 다시 일어서는 서남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재정기여자 즉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서남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 등 2곳을 선정·교육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옆친데 닳친 격으로 서남대 구(옛) 재단측이 학교를 자진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김광수 의원 수상... '의정활동 4관왕'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사진)이 10일, 지방자치TV와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동대상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동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22주년과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온 으뜸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한다.

제6대, 제8대 전주시의원과 제9대, 제10대 전라북도위원을 거쳐 도의회 의장까지 14년의 지방의회 경험을 기반으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국회에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 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예산 확보에 앞장서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 의원은 "민생정치와

지방자치 실현·지역균형발전을 의정활동 최우선의 목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더욱 기쁘고,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히며 "중앙에 의해 지역정치가 재단되는 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 의제를 충실히 다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현장대상", "2017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에 이어 이번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으로 김 의원은 '우수 국회의원상 4관왕'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복날 축산식품 안전공급 총력

하절기 가금류 도축검사 강화·도축시간 연장키로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일 육류성숙기 가금류 도축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 도축장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원활한 식육공급을 위해 도내 가금류 도축장의 도축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 검사관들이 7월부터 9월까지 휴일은 물론 주야간 2교대 24시간 도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가금류 도축장은 (☞)하림, (☞)동우, (☞)참프레, (☞)하림점 등

등 국내 도계업을 대표하는 업체를 비롯하여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이 조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감싸고 도축 전 중 후 작업장 위생점검 및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육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